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한국대학원대학교 교수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은 핵 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 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북핵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동결과 폐기의 2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고 북한은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을 요구한다. 한국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역설한다. 비핵화·체제 보장·평화 정착 등 세 가지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경우 포괄적·단계적 접근이 현실성을 지닌다.

일부에서는 지난 3월 26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

포괄적·단계적 접근과 한미동맹

화 문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동시적 조치의 주체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방(원자)의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도 한 방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매파들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한다. 그러나 핵능력·체제 안정과 관련해서 리비아와 북한의 비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리비아는 16kg 정도의 핵물질만을 가졌지만 북한은 16개 정도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는 내전으로 체제 위기가 임박했지만 북한 김정은 체제는 안정성을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실패로 규정한다.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합의, 부시 정부의 9·19 공동 성명,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등을 전형적인 실패작으로 비판한다. 역사는 과거의 좋은 점만 계속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해나가 발전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가의 몫이 아니라 학자의 몫이다.

일부 언론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제3의 해법이 흘러나온다. 한 방에 핵 폐기를 하는 일괄 타결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

고, ‘살라미(salami) 전술’(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 전술)이 내포된 단계적 타결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비핵화와 경제 보상이라는 단순화된 이분법적인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9·19 공동 성명에 토대해서 북한 핵의 동결과 불능화까지는 경제 보상과 교환하고, 폐기 단계에서 평화 협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전략적 로드맵을 가졌다. 현 단계 북한은 핵의 동결과 불능화를 경제 보상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침·수교와 같은 체제 보장과의 교환을 요구한다.

일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즉흥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세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북한과 접촉한 중앙정보국의 통화에서 중앙정보국 보고를 확인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 특사단이 전해 준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메시지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정보 당국 간의 물밑 접촉

추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억 이슈와 안보 이슈의 연계 발언을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어찌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한미 FTA 개정 합의에 대해 아주 잘했다고 평가해 놓고 인크도 마르기 전에 북핵 타결 시점과 연계를 시켰다. 한미 FTA는 한미 간의 문제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타결은 북미 간의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계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 노출이 아니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 간의 사전 의견 조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국가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세가 진정한 동맹 관계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포괄적·단계적 접근’은 관련 국가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현실적 해법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국민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종교칼럼

우리 안에 있는 방관자적 태도



유 기 영
순천 매곡동성당 주임신부

않게 된다는 방관자 효과는 비단 학교 폭력의 현장인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도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과는 한결을 떨어져서 비난하거나 안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방관자 효과를 대중적 무관심 또는 구경꾼 효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은 우리 마음 속에 은연 중 각인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었던 청소년들은 자조감과 자괴감으로 매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립대 해즐러 교수는 학교 폭력을 목격한 방관자들의 트라우마가 지친 현장에 투입된 구조 요원들의 트라우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어떤 학대나 폭력 상황에 대응해야 할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 사건’이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인을 역시 때때로 차이가 있었지만 방관자 트라우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10장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29~37절)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지만, 사제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함께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빠 그 자리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꾼으로써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더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해야 했지만, 그들은 괜히 그 상황에 영여겨주고 싶지 않아서 도움을 필요로 한 이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류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이미 돌처럼 단단해져 있고,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던 사제나 레위인은 어쩌면 방관자 트라우마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통 분모 어려움과 중심을 잃고 있을 때, 그 즉시 도와줄 용기가 없었는지라도 신경은 쓰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엔 용기를 내어

보리라 다짐도 해보셨는지요.

사제로 살아가는 필자 역시 이 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방관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그런 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간주하고 판단하며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들이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모습에 별 생각 없이 웃다가도, 한편으로는 다사다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서 씁쓸한 기분을 지을 수 없었던 건 아마도 방관자적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4월은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한 제주 4·3사건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달이기도 합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저 방관자처럼 행동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고 가까이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社說

막 오른 민주당 경선,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오늘 광주시장 경선 후보(컷후보 통과자)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민주당 경선은 압도적인 당 지지율로 인해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최대 관심 지역인 광주시장 경선은 윤장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 간 3자 단일 후보 선정,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쉽게 승자를 점칠 수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 6일 컷오프로 후보가 압축되면 15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본경선을 거쳐 20~21일에 1,2위 간 결선투표까지 피 말리는 서바이벌 게임이 이어진다.

전남지사 선거는 물론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경선도 다음 주부터 시작돼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도 긴박하게 전개된다. 문제는 예비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 사활을 걸다 보니 벌써부터 네거티브 선거전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지사 경선에 참

여한 신진훈 후보와 김영록 후보는 대세론 여론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 후보는 “김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이 보낸 의례적인 인사말과 축하 영상을 마치 자신을 지지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김 후보는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지만 정책 선거를 기대한 유권자들을 슝슝하게 하고 있다.

여수시장 경선에서는 가짜뉴스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남의 한 저지단체장 경선에서 유력 후보 부인에 대한 비방과 근거 없는 마두 의혹이 제기돼 고소 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예비후보들은 네거티브가 도를 넘을 경우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에서도 네거티브를 펼치는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교권 침해 “교단에 서기가 두렵다”

교권 침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자녀를 나무랐다고 시도 때도 없이 교무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거칠게 항의하는 학생, 심지어 잠을 깨웠으며 교사를 폭행한 학생도 있다. 이처럼 교사 경시 현상이 만연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아예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광주시교육청 산하 교권 보호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946건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육살이나 폭언이었으며, 폭행과 성희롱도 심심찮게 있었다. 여기에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에 항의하거나 학급 운영까지 간섭하는 학부모 사례도 상당수여서 교사들의 고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잦은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청이 정한 전문상담위원을 찾아가 상담 받거나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정신과

에서 치료를 받은 교사의 수가 지난 한 해에만 134명에 이른다고 한다. 학생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 교사들은 학교나 교육청 몰래 정신과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교권 침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교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제벌 금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교사들은 더 이상 교단에 서기가 두렵다고 호소한다. 교단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무너지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교권 회복이 시급한 이유다. 정상적인 교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교권 침해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가해 학부모 측에 민·형사상의 소송이 가능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無 等 鼓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다. “얼마 전부터 소설책 사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 회사 업무에 집안일에 정신이 없어서. 한 때는 나도 꽤 소설을 읽었는데 말이야. 지난해에는 이상문학상 작품집도 사지 못했잖아.”

소설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연례행사 가 하나 있었다. 그해 나온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사는 일이다. 폭 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쯤 챙겨보는 게 바로 그 작품집이다. 아마도 지금 책장을 살펴보면 이상문학상 작품

한 ‘젊은작가상 작품집’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 문학동네가 주관하는 이상은 등단 10년 이하 젊은 작가들의 중·단편소설 중 7편을 선정한다. 좀 더 많은 독자와 만나도록 책값도 5500원으로 저렴한 책 책였다. ‘동시대 한국문학의 가장 신선한 성취’라는 출판사 측의 말처럼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은 흥미로운 작가의 개인적인 ‘발견’에 있다. 김금희·김성중·손보미 등이 내 마음에 들어온 작가들인데, 계속 지켜보게 된다.

문학상 수상집

1977년 시작된 이상문학상은 가장 인지도가 높은 문학상이다. 첫 수상자인 김승옥의 ‘서늘의 달빛, 0장’을 시작으로 최인호의 ‘깊고 푸른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많은 화제작들이 나왔다. 은희경·공지영·김애란·박민규·김영하·한강 등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쏟아지는 소설을 모두 섭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학상 수상집은 독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후보자가 7~10명 정도이니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고 ‘나만의 수상작’을 뽑아볼 수도 있다. 몇 년 전부터는 2010년 출간되기 시작

문학동네가 올해는 2019 작품집과 함께 ‘2010~2017 젊은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내놓았다. 동네 서점 56곳 대표들에게 마음에 남는 작품을 추천받아 선정된 7편의 단편을 묶은 책이다. 이 책은 동네 책방에서만 살 수 있는데, 바닐 포장을 뜯기 전에는 수록작도 알 수 없다. 8년간 선정된 56편 중 어떤 작품이 뽑혔는지 궁금한데, 답을 찾으려면 즐겨 가는 동네 서점에 얼른 다녀오는 수밖에.

요즘의 ‘한국 소설’이 궁금한 독자에게 이 책은 ‘안성맞춤’일 듯하다. 검사 겸 동네 책방 구경도 할 수 있으니 봄날, 나들이 삼아 찾아가 보시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 고

장보고를 다시 생각한다



주 시 경
광주본부세관장

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페르시아, 유럽과도 교역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이며 혁신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런 것 같지만 정해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유물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약 1200여 년 전 장보고의 발자취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무역 환경과 대비되면서 여러 감회가 들었다.

“이곳이 청해이다. 비록 조그마한 여촌에 불과하지만 곧 우리 손으로 완벽한 해상 요소를 바꾸어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안도에 청해진을 건설하면서 장보고가 백성들을 독려하며 한 말이다. ‘청해’(淸海)는 안도의 지명어 아니다. 해적의 소탕하고 무역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없앤 ‘푸른 바다’, 즉,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장보고의 이상향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보호무역의 파고에 휩쓸리고 있다. 미국과의 FTA 재협상, 미·중간 상호 보복 관세 부과 등 모든 현안들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자동차 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우리 지역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 결과와 금주여유에 해외 매

각 등에 대해 시민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장보고와 같이 도전 및 개혁 정신을 통해 적극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에스카모에 냉장고를 판다든지, 커피 원산지에 믹스 커피를 수출하는 등 역발상을 통해 작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관내 한 중소기업은 고정관념을 깨고 김을 반찬이 아닌 과자로 마케팅하여 5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지난달 광주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한 ‘광주시 해외시장 개척단’이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서 3024만 불의 수출 상담과 MOU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미국 위주에서 벗어나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새로운 도전의 좋은 사례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했듯이 수출기업이 안전하고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무역 환경 즉 오늘날의 ‘청해’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의 혁신적인 활동에 발맞추어 물류·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례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수출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상대국에서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까지도 현지 관세관 등 관세 외교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완도 전복 등의 농수축산품과 김치 등 전통 식품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 원산지를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아울러 규제외 본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적시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마도 장보고는 기업가와 정부의 일치된 노력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임을 지금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다. 기업가의 혁신적 사고와 도전 정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제도 외 시스템, 이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 무역 강국을 이루어낸 장보고 청해진 대시! 안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1200년 전 시대를 관통하는 해안을 가졌던 그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